

광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가 군사분계선 일대에 지뢰를 매설하고 대전차 장벽을 설치하는 등 전쟁위험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50여만 명의 국군장병들은 육지에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필사즉생(必死即生)의 각오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다.

일전에 신문 보도를 보니 군인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주는 카페주인이나 자식 같다며 밥값을 대신 지불해 준 이름 모를 신사들이 있었다. 이렇듯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군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군인들의 사기는 충만 되는 것이다.

우방국인 미국 국민들의 군인에 대한 대우나 예우를 보면 미국 군인으로써 긍지와 충만한 자존심을 갖고 사기가 높아 있음을 보게 된다.

예를 들면 미국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순서를 기다릴 때 “지금부터 탑승을 시작합니다. 일등석·비즈니스석 손님, 장애인 그리고 군인들은 먼저 비행기에 올라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방송을 하며 각듯이 군인들을 예우하고 있다. 이런 모습에서 미국 국민들은 “군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편안히 잘 살고 있다”고 고마워 하며 최상의 대우를 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 국민들이 보이는 대우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군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품격을 갖추었으면 한다.

어느 나라든 각자의 국민들은 자기 나라의 군대가 위풍당당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군인은 유사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신성한 임무 때문에 명예롭고, 존중 받아야 하고 강군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신병교육대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국방부와 각 군의 대표가 회의 끝에 내놓은 대책이 군기 훈련에서 체력 단련 종목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구보나 완전 군장으로 걷기, 팔굽혀 펴기 같은 군기 훈련은 보지 못할 것이다. 대신 명상과 군법교육 같은 정신 수양만 한다면 전투력이 약화돼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약골 군대는 무장해제나 다름없다고 만면에 미소를 짓게 될 것이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군대에서 군사훈련을 하지 말자는 말까지 나올까 걱정된다.

사망사고에 대한 국방부나 군 수뇌부의 근본 대책은 훈련규정을 준수하고 지휘권을 공명정대하게 행사하는데 초점을 맞춰 대한민국 군대를 강군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위풍당당하기를 바란다면 우리 국민이 군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사기(士氣)’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한 국가의 군대가 의욕과 자신감으로 충만하여 굽힐 줄 모르는 사기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강력한 지지에서 나온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남북이 대치하여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 상황 앞에 놓여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은 국군장병들 덕택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고마워 해야 한다.

군의 명예는 국민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킬 길이 없다. 대한민국 군대가 위풍당당한 강군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이자 숙명이다. //

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기에 내가 부족한 것들을 이웃이 채워주고 이웃의 어려운 부분을 내가 도우며 더불어 사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인생(人生)과 인간(人間)이 있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 인생은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뜻이고 인간은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가’란 말이다. 사람을 두고 쓰이는 이 두 말은 사람에게 가장 값지고 엄숙한 말이다. 이는 이 두 단어가 사람의 생명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서로를 위해 사랑을 실천하면서 혼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흔히 사람들은 곤충에 비유해서 인간을 세 종류로 구분해서 말하기도 한다.

첫째는 거미처럼 사는 인간이 있다. 그늘진 곳에 거미줄을 쳐놓고 가만히 기다리다 지나가는 곤충이 걸려들면 슬그머니 기어나와 피를 빨아먹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개미형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개미는 부지런하고 조직력도 강하지만 누구에게 유익을 주거나 혼신함 없이 오직 자신들만 위해서 살아가는 개인주의자라 할 수 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베풀지도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로 꿀벌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꿀벌은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조직력 또 한 매우 강하다. 그럼에도 꿀벌은 질서 있게 활동하며 많은 꿀을 만들어 자신들도 먹지만, 상당한 꿀을 생산, 이타주의의 삶을 산다.

결국, 거미 같은 삶을 사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개미형은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다. 꿀벌 같은 사람은 이 세상 사회 곳곳에 꼭 필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어느덧 가을도 겨울에 밀려 떠나간다. 우리 사회에서 나오는 이상한 콤플렉스다. ‘어려 보인다’는 칭찬으로 들리는데, ‘머리에 피도 안 마른’은 욕이 된다. 탱탱한 피부는 부(富)의 상징이고, 눈가 주름은 대비하지 않은 베짱이의 겨울처럼 안쓰럽다. 길거리에서 행여 싸움이라도 나면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몇 살이야?”를 외친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이를 먹어간다. 그래서 늙어갈수록 나이를 하루하루 꼭꼭 씹어 잘 먹어야 한다. 30년 묵은 위스키가 21년 묵은 위스키보다 값진 것은 더 오랜 시간 묵묵히 성숙했기 때문이다.

벗을 얻는다는 건 결코 여행은 없다. ‘내가 더 먼저’를 백번 천번 실행했을 때 비로소 벗은 자연스럽게 내 옆에 존재하는 것이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 추석만 같아라’라는 푸짐한 인심의 추석 명절도 지나갔다. 조선시대 부자의 대명사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경주 최부잣집에는 다음과 같은 가훈이 있다고 한다.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남들이 쌀값에 내놓은 논밭을 사서 그들을 원통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특히 흉년에는 양식을 풀어 이웃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웃의 불행을 내 발전의 디딤돌로 삼지 말라는 교훈이기도 하다. 모든 조각을 채워야만 완성하는 퍼즐처럼 우리들도 완벽하

지난해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은 사람이 되려하는 사람들의 사회에서 나오는 성실한 역사가 된다.

며칠 전에 내렸지만, 이번 가을은 참으로 현란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하루하루가 감격이고 흥분이었다. 꽃들은 한잎, 한잎 자신의 아름다운 자태를 깡그리 쏟아내며 향기를 내어준다. 국화가 그랬고, 코스모스, 갈대가 그랬다. 이를 모를 꽃들이 매력을 품어내며 꽃들의 향연이 펼쳐진다. 가을은 나이가 지긋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존재 자체의 희열을, 그 농도를 지금이 알려주고 있다.

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지만, 필자는 이 꽃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또 다른 나를 맞이한다. 이렇게 익어가는 나이에 반드시 하고 떠나야 할 말들, 그리운 이들을 마음 안에 깊이 새기는 것, 그래서 하얀 눈이 쌓이는 겨울, 마음 아파하지 말아야 한다.

화려했던 꽃잎이 지듯 우리의 삶도 질 때가 있다. 주변의 사람과 자연과 교감하는 건 살아있음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드리는 것 또한 우리의 뜻이다.

화단에 잡초가 무성하다. 문득 우리 마음에도 그런 화단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좋은 씨앗을 뿌려 잘 가꾸면 좋은 열매가 열린다. ‘감사하다.’ 그 말은 푸근함을 느낀다. ‘수고하셨어요.’ 그 말에 고마운 마음이 생긴다. ‘여르신 힘내세요.’ 그 말은 큰 위로가 된다. ‘행복하세요.’ 그 말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늘 멋지셔요.’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 나아 들수록 긍정의 말을 쓰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삽시다.’ 좋은 말 한마디는 사람에게 희망과 삶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한다.

우리도 마음에 밭을 가는 농부가 되자. 베풀고 나눔의 즐거움을 아는 마음, 하고 싶지 않아도 웃으며 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내 마음에 꽂밭을 가꾸듯 잘 가꾸어 나간다면 우리의 사회는 상생의 사회가 되어 밝고 맑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는가.

겨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내일에 내 모습, 내일의 나를 만든다.

가다가 쉬더라도 저 본향을 향해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

## 사라진 풍경

김완용 (예준위, 준사관 57기, 한국공무원문학협회장)



지붕 끝을 기준으로 하루를 열고 닫는 햇살이 골짜기로 내려와 어둠 깃들면, 이빨 드러낸 시린 서릿발은 산등성이 소리 없이 맷

히고, 길 잃은 바람 한 줄기 있는 듯, 없는 듯 병든 나뭇가지에 앉아 노숙한다.

천상을 울리는 여인의 울음이 듯 초저녁부터 계곡 깊이 숨어 앉아 서럽게 울던 두견이도 목울대 아풀 늦가을이다. 이맘때면 내 삶의 길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55년 전의 젊은 날이 돌아와 내 가슴속에 출렁인다.

조국의 하늘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20세의 젊은 나이로 공군의 요람이었던 계룡산자락 항공병학교에 입대하여 36년의 세월을 저당잡고 살았던 이곳이 지금은 세월이 지고, 그리운 얼굴들이 떠나고, 붉게 타오르던 오색 단풍마저 지워지고 있다.

백제의 용사들이 달려갔을 항산벌 들녘도 이제 가을을 베어낸 흔적만 안고 흘러가는 바람결에 겨울을 기다린다.

한때는 공군의 요람이 있던 대전에서 계백장군의 후예처럼 늠름하게 조국의 하늘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땀을 쏟으며 기본 군사훈련과 특기교육과정을 보내던 시절도 1960년대 후반 늦가을에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당시에는 숨 막히는 훈련과 기합 속에 아름다운 계룡산을 전혀 인지하지 못

## 마음의 밭에 꽃씨를 뿌리자

안호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던 더위가 급기야는 가을에 밀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먼길을 떠났다. 죽었다. 너무 시달려 ‘물러갔다’라고 표현하기는 푸리지 않는다.

날씨에 성질을 내봐야 지구 온난화를 부채질한 사람 탓인데, ‘덥다 춥다’하며, 우격다짐하는 우리네 싸움판은 여전히 끝나지 않는다.

깊어만 가는 가을, 겨울은 어느덧 나그네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공원 산책길은 낙엽으로 덮여있고, 빈 가지 위 하늘은 맑은 청색으로 탄성을 울리지만, 목덜미는 찬바람에 시리다. 싱그러운 가을과 옷깃을 가리는 겨울 사이에 필요한 건 무엇일까.

산모퉁이에 있는 간이 식당에서 신 김치를 듬뿍 넣은 칼국수를 먹으며 사색에 젖어 든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 했나? 단한 사람이라도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의 이야기라도 마음을 함께 나누는 편한 벗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벗?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사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옆에 있어 주는 사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진정한 벗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했다. 동학사 비구니스님들의 슬프디 슬픈 사연들도 전혀 알 길이 없었다. 다만 젊년 퇴직을 앞두고 서울에서 이전한 공군본부를 따라 내려와 그때서야 계룡산의 사계를 완연히 느낄 수 있었다.

아침 출근해서 창밖으로 흘러가는 세월 들의 흔적을 매일 다른 얼굴로 만나볼 수 있음에 감사했다.

봄이면 푸른 물감을 풀어놓듯 매일 계룡 산 천황봉을 한 뺨씩 기어 올라가는 푸른 군대의 기상(氣像)을 보여줬으며, 가을이면 천황봉에 프로메테우스가 인류최초로 불 여놓은 불자락이 한 뺨씩 인간세계로 내려오는 자연의 섭리를 깨우쳐줬다.

매주 수요일 오후와 휴무 날이면 계절의 변화를 찾아 오르내리던 계룡산, 정년 후에도 나는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내생의 마지막 문학열정을 심어놓기 위하여 그 자락에 묻혀 산다.

옛 생각에 찾는 동학사 가는 길섶 늙은 벚나무들도 수명을 다하여 봄에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니 이제 가을이 와도 낙엽이 풍성할리 없다.

그래도 몇십 년 전에 나는 계룡산 가을 예찬을 하면서 ‘동학사 가는 길섶 가을바람

에 낙엽 흘날리는 벚나무 가로수 밑을 바바 리코트 입은 여인이 빨간 하이힐 신고 똑똑 추억을 짹으며 간다’고 했다.

서정과 낭만을 안겨주던 내 젊은 날의 계룡산이 나이와 더불어 늙어가고 있음을 본다.

차라리 퇴직 후 면 곳으로 떠나 간혹 기행 을 핑계로 찾아오는 곳이었다면, 새록새록 피어나는 추억 때문에 밤잠을 설쳤으리라.

천황봉, 삼불봉, 연천봉, 장군봉, 동학사, 신원사, 갑사 등 모든 지세와 문화재들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바뀌고 세월이 흐른 만큼 풍경도 자세를 바꾸었다. 무작위로 휴무 일마다 찾아드는 관광객들이 짓밟고, 버리고 가는 쓰레기에 산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나마 군사지역으로 선을 긋고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곳만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따름이다.

사라지는 풍경들은 다시 복원시키기가 쉽지 않다.

가을이 되면 멀리서 바라보는 단풍든 계룡산이 너무 아름답다. 무조건 산행을 허가만 할 게 아니라 자손만대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것이 금수강산이다.//

일본 사회에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겼다. 이는 일본 내에서 한국계 학교의 존재와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교토국제고의 교가가 방송을 통해 전국에 중계된 것은 일본 사회에서 소수자로서의 한국계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

이번 우승으로 교토국제고의 야구부는 단순한 스포츠팀이 아닌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작은 학교의 야구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훈련한 결과, 일본 전역에서 주목받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스포츠의 힘이 단순한 승패를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적 장벽을 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백승한 교토국제고 교장은 이번 우승 후 인터뷰에서 “야구를 통해 학교 발전과 동포 사회가 하나 되는 계기를 만들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토국제고 등학교의 우승과 한국어 교가의 울림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일본 사회 내에서 한국계 학교가 어떻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교토국제고의 우승은 스포츠를 통한 승리를 넘어, 재일교포 사회와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교토국제고의 성과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며, 이 학교가 앞으로도 한일 양국 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번 교토국제고 야구부의 성취는 그 자체로 값진 승리이며, 앞으로도 이들의 열정과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교가(校歌) 이야기에서 국가(國歌) 이야기로 넘어간다.

2024년 현재 세계지리정보원에 등록된 237개 국가 중 UN에 가입된 나라는 192개국이다. 그런데 대다수 국가는 각기 다른 국기(國旗)와 국가(國歌)를 갖고 있지만 국가(國歌)가 없는 나라가 있다. 바로 유럽의 스페인(SPAIN)이 국가(國歌)가 없는 국가(國家)이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국제 축구 랭킹 1위인 스페인이 축구대회를 우승했다. 그런데 금메달 수여식장에서 스페인 국가의 노랫말은 없이 군 행진곡만 흘러나왔다.

그렇다면 스페인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국가(國歌)가 없을까? 궁금하다.

스페인 국가 “La Marcha Real”은 전통적으로 가사 없이 연주되는 국가이다.

스페인 국가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공식적으로 가사가 없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 곡은 18세기 스페인 왕 카를로스 3세의 통치 시기에 처음 도입된 군악곡(軍樂曲)이며 당시 군대(軍隊) 행진곡이었다. <La Marcha Real>이란 <왕(王)의 행진곡>을 뜻하며 가사(歌詞)가 없는 기악곡(器樂曲)이다. 지난 시절 스페인은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가사가 채택하지 못했다. 스페인 선수들은 우승 시상식에서 국가가 연주될 때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았다. 부를 노랫말이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여러 번 가사를 붙이려는 시도가 있었다. 예를 들면 19C~20C 초에 시인들과 작곡가들이 애국가 가사를 제안했지만,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프란코(Franco) 독재 시절에는 가사가 잠시 사용되기도 했지만, 독재정권이 끝난 후 다시 가사가 없는 형태로 돌아갔다. 스페인 정부는 계속해서 애국가 가사를 제정하려는 논의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언어적, 지역적 다양성이 큰 스페인에서 통일된 가사를 만드는 게 여의치 못했다. 지금도 <La Marcha Real>은 가사가 없는 스페인 국가로 연주되고 있다. 따라서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스페인이 우승해서 스페인 국가를 연주할 때 가사가 없는 음악 연주만 흘러나온다.

끝으로 ‘국가(國歌)’란 영어 단어가 ‘National Anthem’이다. ‘Anthem’은 기독교 찬송가(讚頌歌)란 의미(意味)이다. 그렇다면 국가(國歌)란 ‘National Anthem’은 ‘각 나라 별로 부르는 한 나라의 찬송가’란 뜻이지 싶다. 그래서 그런지 영국 국가와 독일 국가의 가사(歌詞)는 기독교 찬송가에 나오는 문구(文句)임을 알 수가 있다. “일본 국가 ‘기미가요(きみがよ)’는 장송곡(葬送曲)처럼 들리며 대한민국 애국가 가사(歌詞)는 미래지향적(未來指向的)이기보다는 너무 축소지향적(縮小指向的)인 느낌이 든다”고 한식자(識者)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교토국제고 교가를 듣던 중 노랫말이 없는 스페인 국가가 생각나서 중언부언(重言復言)했다.//

## 자녀를 위한 기도

고연호 (예 대위, 학사 59기)

바람부는 세상  
고난과 역경의 삶 속에서도  
꿈을 키우며  
흔들림이 없이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숲을 보면 나무도 볼 수 있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진실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에 더하여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 회원가입 안내

## ■ 공군전우회

### △ 회원자격

공군에서 전역한 전 장교, 부사관, 병 및 군무원, 보충역, 제2국민역으로 복무하신 모든 공군예비역분을 모십니다.

### △ 회원가입 절차

- 공군 현지부대에서 전역하는 장병/군무원들은 부대 인사 참모를 통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미 전역하신 분은 본회(중앙회) 또는 전국지회를 통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 공군전우회 홈페이지 ([www.airforce.ne.kr](http://www.airforce.ne.kr))를 통하여 가입하셔도 됩니다.

### △ 회원구분

| 구분  | 자격              | 회비       |
|-----|-----------------|----------|
| 정회원 | 연회비 납부자         | 3만원(매년)  |
|     | 평생회비 납부자        | 20만원(1회) |
| 준회원 | 홈페이지 가입자(회비미납자) |          |

### · 입금안내

- 우리은행 319-260099-01-001 / 공군전우회
- 국민은행 485501-01-108707 / 공군전우회
- 지로입금 / 지로번호 : 6306588

본회 지로용지를 동봉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께서는 지로용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 △ 회원혜택

- 본회의 정기 회지(보라매) 투고 및 구독
-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선별적 참가
- 재경지역 평생회원/연회원(해당년도 회비납입) 가입자 부모, 본인, 처 사망시 근조기 지원
- 10년미만 복무자 공군체력단련장 이용시 준회원 대우
- 특별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함.

### △ 신분별/직능별단체

| 단체명          | 회장                | 사무(총)국장           |
|--------------|-------------------|-------------------|
| 공군항과고총동창회    | 김진홍 010-5187-3625 | 방정원 010-8618-4558 |
| 공군2사종동문회     | 김장회 010-5463-1786 | 김종현 010-4801-7034 |
| 공군ROTC장교회    | 김석찬 010-6233-7231 | 이상복 010-9382-1084 |
| 조종간부회        | 이옥희 010-4526-9856 | 최종환 010-6212-6644 |
| 황성회(준사관)     | 장군 010-5073-9424  | 신승진 010-5175-3051 |
| 원우회(부사관)     | 차주성 010-3548-2893 | 정수일 010-5096-6150 |
| 군무원회         | 정화일 010-8753-6357 | 이원 010-4273-7005  |
| 인터넷전우회(로카피스) | 이중근               | 이병권 010-5071-4763 |
| 공군통역장교회      | 심건 010-9175-3886  | 김장환 010-4117-7158 |
| 유치곤장군보존회     | 김영오 010-8592-8804 | -                 |
| 순직조종사부인회     | 송우영 010-9020-8358 | 박종희 010-4021-3616 |

| 지회    | 회장                | 사무국장              |
|-------|-------------------|-------------------|
| 광주시지부 | 손정문 010-3601-3899 | 김승식 010-3603-0724 |
| 대구시지부 | 남상석 010-3080-6432 | 정규채 010-8206-7712 |
| 대전시지부 | 김호중 010-5409-6881 | 신두철 010-3141-2207 |
| 부산시지부 | 김선호 010-3590-2852 | 김경태 010-5071-2286 |
| 인천시지부 | 최용주 010-9855-2930 | 윤양로 010-7749-7668 |
| 제주도지부 | 강영환 010-3939-9000 | 김상현 010-9687-4312 |
| 강릉시지회 | 황용기 010-8277-5402 | 김광종 010-5061-8541 |
| 경주시지회 | 정진표 010-8364-3060 | 유시현 010-6511-0006 |
| 군산시지회 | 반영곤 010-5173-2975 | 고석권 010-8645-4105 |
| 군위군지회 | 은현기 010-9460-1068 | 조임식 010-3441-7527 |
| 김해시지회 | 제해언 010-4560-0622 | 김민준 010-8208-7797 |
| 동두천지회 | 김정수 010-5036-5133 | 김인국 010-8722-5831 |
| 문경시지회 | 한상식 010-5769-4355 | 김동성 010-9795-4210 |
| 사천시지회 | 박갑용 010-9676-1907 | 문상경 010-6579-0220 |
| 서산시지회 | 홍만진 010-6422-9440 | 도임구 010-5081-7799 |
| 성남시지회 | 박문석 010-3768-1234 | 안재성 010-3631-0120 |
| 수원시지회 | 송요정 010-3319-3744 | 이혁재 010-4678-4065 |
| 속초시지회 | 권영화 010-3722-1777 | 김창혁 010-4314-0891 |
| 아산시지회 | 정순웅 010-5422-6945 | 이석종 010-8505-9802 |
| 영월시지회 | 장호근 010-5363-0748 | 이종구 010-8901-4827 |

|        |                   |                   |
|--------|-------------------|-------------------|
| 양평군지회  | 김수영 010-2771-2772 | 김재학 010-3011-9693 |
| 영주시지회  | 허기영 010-3840-8381 | 석두환 010-9076-9002 |
| 이천시지회  | 한상숙 010-3485-9678 | 김기창 010-4760-8217 |
| 의산시지회  | 최병훈 010-2686-6111 | 차경수               |
| 예천군지회  | 양찬모 010-9191-8949 | 조원희 010-3548-0584 |
| 의왕시지회  | 이석우 010-5245-4639 | 이병래 010-8721-2984 |
| 원주시지회  | 김구식 010-4937-5110 | 이상인 010-5071-5151 |
| 전주시지회  | 오정수 010-5641-3496 | 윤한호 010-3676-9523 |
| 진주시지회  | 오기호 010-2207-9017 | 강석동 010-3872-4292 |
| 창원시지회  | 이성배 010-3566-6123 | 조진형 010-4879-9089 |
| 청주시지회  | 이균신 010-3576-9626 | 한일민 010-7774-3191 |
| 충남서부지회 | 조봉환 010-2253-7113 | 이선백 010-3029-3523 |
| 충주시지회  | 조동주 010-8441-1200 | 효웅기 010-5078-7656 |
| 칠곡군지회  | 이진권 010-3503-0321 | 장병찬 010-8584-7070 |
| 철원군지회  | 구한서 010-6372-9332 | 임연재 010-5352-5381 |
| 포천시지회  | 신건영 010-5365-5647 | 하명균 010-8830-3816 |
| 평택시지회  | 왕관현 010-5256-0188 | 김근찬 010-2755-2071 |
| 화천시지회  | 김철준 010-6276-9889 | 이영수 010-8891-1393 |

### △ 해외지회

| 지역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주소                 |
|------------|-----|---------------|-----------------------|
| 미국 조지아     | 백남오 | 770-622-9227  |                       |
| 미국 덴마      | 김봉회 | 303-750-7476  |                       |
| 미국 샌디에고    | 이세중 | 760-845-1287  |                       |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 김영본 | 919-946-6614  | af66809@hotmail.com   |
| 미국 시카고     | 이근효 | 847-439-1168  |                       |
| 미국 뉴욕      | 임재빈 | 201-233-6622  |                       |
| 미국 워싱턴     | 한수웅 | 301-806-2976  | suhan317@yahoo.com    |
| 미국 L A     | 심인태 | 213-700-2566  | intaishim@hanmail.net |
| 미국 필라델피아   | 서장석 |               |                       |
| 미국 샌프란시스코  | 이두용 | 510-745-7874  |                       |
| 미국 하와이     | 장재혁 | 808-947-7582  | 9477582@gmail.com     |
| 캐나다 동부     | 위정남 | 647-802-9981  |                       |
| 캐나다 서부     | 홍창의 | 604-463-4129  |                       |
| 브라질 상파울로   | 박승문 | 5511-222-9325 |                       |
| 아르헨티나      | 전영표 | 11-4632-8139  |                       |
| 호주 시드니     | 윤석효 | 0417-049-722  |                       |

## ■ 공군발전협회

△ 회원자격 : 기관, 단체, 기업체 및 대한민국 국민(성인)

### △ 회원구분

| 구분   | 자격          | 회비       |
|------|-------------|----------|
| 정회원  | 연회비 납부자     | 3만원(매년)  |
| 평생회원 | 평생회비 납부자    | 30만원(1회) |
| 후원회원 | 후원금 납부자     | 제한없음     |
| 단체회원 | 기관, 단체, 기업체 | 약정금액     |
| 명예회원 | 이사회에서 위촉한 자 | 없음       |
| 일반회원 | 단체회원의 구성원   | 없음       |

### △ 가입절차

- 공군발전협회 홈페이지([www.arokaf.co.kr](http://www.arokaf.co.kr)) '회원가입' 클릭 후, 안내화면에 따라 가입
- 공군발전협회 소정 양식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우편 또는 FAX 발송

### △ 회비납부

-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6-301-276447 (예금주/대한민국공군발전협회)
- 국민은행 485501-01-339123(예금주/대한민국공군발전협회)

### △ 회원혜택

- 본회의 정기회지(신문/책자) 투고 및 구독
-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선별적 참가)

## ■ 문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태성관2층) 06944
- Tel(02)825-8461~2, 811-1412 / Fax(02)825-8460 (군)923-7590, 923-7541
- E-mail / [kafva-airforce@naver.com](mailto:kafva-airforce@naver.com)



## 회비 소식

### ■ 공군전우회

#### ◆ 평생회비 납부하신 분 (2024. 07. 01 ~ 09. 30 까지)

|     |     |     |     |     |     |
|-----|-----|-----|-----|-----|-----|
| 경인수 | 김연식 | 문영배 | 송재윤 | 이종근 | 주신호 |
| 김광진 | 김용환 | 박호성 | 안창경 | 임재풍 | 진용일 |
| 김근환 | 김종국 | 배순근 | 오인석 | 임호  | 황기영 |
| 김순노 | 김창래 | 서승본 | 유원봉 | 정원교 |     |

#### ◆ 연회비 납부하신 분 (2024. 07. 01 ~ 09. 30 까지)

|     |     |     |     |     |     |
|-----|-----|-----|-----|-----|-----|
| 강대정 | 김성환 | 문병주 | 변뢰권 | 이영재 | 정지성 |
| 권영창 | 김용문 | 문정구 | 오을진 | 이원혁 | 천훈일 |
| 김명호 | 남창순 | 반영곤 | 윤부영 | 이현수 |     |

#### ◆ 찬조금 기부해주신 단체 및 개인 (2024. 07. 01 ~ 09. 30 까지)

|          |           |     |         |        |         |
|----------|-----------|-----|---------|--------|---------|
| 부사관전우회   | 2,000,000 | 남유열 | 200,000 | 조한의    | 200,000 |
| 공군2사총동문회 | 1,000,000 | 도회승 | 200,000 | 진창석    | 200,000 |
| LA지회     | 200,000   | 박한익 | 200,000 | 채수덕    | 200,000 |
| 문영배      | 3,000,000 | 변뢰권 | 200,000 | 최정호    | 200,000 |
| 김한용      | 2,000,000 | 신동수 | 200,000 | (고)김정열 | 100,000 |
| 김영배      | 1,000,000 | 심인태 | 200,000 | 남궁영    | 100,000 |
| 김장회      | 1,000,000 | 이석봉 | 200,000 | 김재윤    | 50,000  |
| 윤종상      | 300,000   | 이진명 | 200,000 | 박종효    | 50,000  |
| 고대수      | 200,000   | 정성억 | 200,000 |        |         |
| 김호진      | 200,000   | 정양훈 | 200,000 |        |         |

### ■ 공군발전협회

#### ◆ 연회비 납부하신 분 (2024. 07. 01 ~ 09. 30 까지)

|     |  |  |  |
|-----|--|--|--|
| 박범진 |  |  |  |
|-----|--|--|--|

#### ◆ 기부·협찬금 납부하신 단체/개인 (2024. 07. 01 ~ 09. 30 까지)

|       |                |
|-------|----------------|
| 고석인   | 3,000,000      |
| (주)보령 | 5,000,000(광고비) |
| 군인공제회 | 2,200,000(광고비) |



## 쇼핑몰

공군전우회에서 전 회원에게 공급 중인 제품입니다.



골프 등산용 자켓  
25,000원



동절기 조끼(일부품절)  
25,000원



골프장갑  
15,000원



뱃지(활동/순금도금)  
5,000원